

##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강 스트레칭 동영상 제작·배포

마포주민편익시설 휴관으로, 근무 중 수시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법

마포구시설관리공단(이사장 이춘기)은 공단에서 운영 중인 마포주민편익시설(상암동 월드컵북로 44길 40)이 휴관함에 따라 이 곳을 이용했던 고객과 마포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.

이 동영상은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하는 전문 헬스 트레이너들이 주관이 되어 제작 하였으며 한편, 공단에서 격무에 임하고 있는 주차관리원, 환경미화원 등이 근무 중 수시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제작하여 같이 배포하였다.

동영상 제작에 참여한 관련 직원은 “지난 10년간 마포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주신 고객님들이 코로나19로 시설을 방문하지는 못하

만, 이 동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추후에도 다양한 스트레칭 동영상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 지역 주민의 코로나19 극복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” 라고 희망찬 메시지를 전했다.



##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정책 추진하기 전에 사전검토 실시키로

주민참여, 유관기관 협의, 전문가 자문 등 9개 사항에 걸쳐

마포구시설관리공단(이사장 이춘기)은 공단 전부서의 정책, 사업계획 수립 시 ‘사전 검토항목’작성 의무화를 추진한다. 지난 9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 공단은 모든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참여, 유관기관 협의, 안전 및 취약계층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 등 총 9개 사항에 걸쳐 사전검토를 실시한다.

‘사전 검토항목’를 통해 공단은 주민참여, 유관기관 협의는 물론 취약계층, 고용효과, 전문가 자문 및

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 담당자와 추진부서에서 스스로 문제 발생 가능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공단 관계자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예상하지 못한 반발이나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반영되면 불필요한 논쟁이나 방향 전환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.